

이병우 “기타는 이제 나와 한 몸”



13년만에 새 앨범 ‘우주 기타’ 발매 기타 한대로 가능한 모든 소리 담아

“오랫동안 찾던 소리를 이제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못 찾아 그동안 앨범을 자주 발표하지 못한 이유기도 하지요.”

13년 만에 새 기타 앨범 ‘우주 기타’를 발매한 기타리스트 겸 영화 음악감독 이병우(51·사진)는 “이번 앨범에서 음악적인 것이 정리됐다”며 편안한 모습이었다.

20일 서삼동 자택에서 만난 그는 “막연하게 좋아만했던 것에 대한 논리를 찾았다”면서 “기타 하나만 가지고 다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뤘다”고 말했다.

기타 솔로 총 11곡이 실린 ‘우주 기타’는 기타 한 대로 가능한 모든 사운드를 들려준다. 앨범 제목처럼 전체적으로 초현실적이며 목직향 분위기를 풍기는 가운데서도 다채롭다. ‘첫 번째 비행’은 긴장과 이완의 줄타기의 진풍경이며 ‘아버지의 편지’는 이병우 앨범 초창기의 서정성이 짙다.

“사실 이번 앨범은 1집(1989년 발매한 ‘내가 그린 기린 그림’)과 콘서트적인 면에서 비슷해요. 기타 하나로만 해본다는 거요. 20년 간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그 동안은 감만 있었어요.”

기타 한 대로만 녹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강약, 프레이즈(작은악절) 등이 마음에 든다고 흡족해했다.

“대중적이면서도 중간에 실험적인 소리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주제가 반복될 거라 생각하는 부분에서 화려한 즉흥 연주가 나오고, 기타 줄을 뜯어서 이펙트를 넣는 식이죠. 빠른 패시지(악곡의 짧은 부분)를 빠르게 연주해야 할 때 더 격렬하게 연주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르게 연주하려고 했습니다.”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 1인자로 통하는 이병우는 11세 때부터 기타를 쳤다. 조동익(56)과 결성한 포크 듀오 ‘어떤날’ 활동을 통해 1980~1990년대를 기타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이후 ‘왕의 남자’ ‘해운대’ ‘괴물’ ‘국제시장’ 등에서 음악감독도 맡아 ‘홍행 감독’도 됐다.

하지만 그는 ‘기타 짝이다. “기타는 이제 나와 한 몸이다. 신체기관의 하나처럼 됐다”며 아이같은 환한 미소를 지었다.

40여년간 손가락을 부지런히 뿜겨왔지만 “앞으로도 더 연주하고 싶다”는 그는 “기타(奇打)는 ‘기이한 두드림’이라며 여전히 기타에 매료돼있다.

“이번 앨범 내기 전에 우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 안에서 먼저처럼 계속 분해돼도 인연이 있으면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우주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두드림’, 그 기타 소리가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거라 믿어요.” /이성주 기자



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정음시립정음사국악단과의 조우’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은 〈정음시립정음사국악단과의 조우〉공연을 2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정음시립정음사국악단의 소리(창극부)와 음악(연주부), 몸짓(무용부) 등 전통예술로 꾸며진다.

이날 무대는 수제천 선율을 편곡한 곡에 맞추어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는 작품 ‘제천무’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대표 민요를 한데 모은 ‘팔도민요연곡’, 두 대의 아쟁으로 연주되는 이경섭 작곡의 ‘추상’, 소리극 형식으로 엮은 ‘COME ON 제비’, 왕기석 단장의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고구려의 기상을 담은 역동적인 춤사위 ‘경고무’, 한 해의 액을 막아주는 ‘액막이 타령’, 우리네 여인의 강인함을 다양한 북의 가락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표현한 타악작품 ‘쌈터 풍고’를 선보인다.

공연은 김선희 정음시립정음사국악단 단무장이 사회를 맡아 곡의 해설을 곁들여 국악 전공자는 물론 가족단위 관객이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목요국악예술무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는 290-6840. /정해은 기자

조선시대 국가 제작 활자 8만자 만난다 ‘활자의 나라, 조선’ 전 개막

‘활자(活字)’는 살아 움직이는 글자라는 뜻이다. 글자 조각들을 옮겨가며 여러 내용을 인쇄하는 데 거듭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활자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활자는 11세기 중국 송나라에서 필승(~1051)이 처음 발명했지만, 흙을 구워 만든 탓에 실용화에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활자의 재료를 금속으로 대체해 활자 인쇄를 본격화한 것은 고려(918~1392)였다. 하지만 고려는 한자라는 문자의 특성이나 서구와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근대를 여는 혁신적인 매체를 선도하는 영예를 구텐베르크(1398~1468)에게 내주었다.

조선(1392~1897)은 다양한 책들을 인쇄하기 위해 고려시대에 발명된 금속활자 인쇄를 발전시켰다. 통치를 위해 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활자를 제작했다. 1403년(태종 3)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芥末字)를 만들면서 태종이 한 말에서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책을 널리 읽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어 중국의 서적이 좀처럼 오지 않고 판각본은 훼손되는 데다가 또 천하의 온갖 서적을 다 판목으로 새기기는 어렵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실 1층 고려

3실에서 21일 개막한 ‘활자의 나라, 조선’전은 조선시대 국가 제작 활자 82만여 자의 전모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9월11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서는 박물관이 소장한 활자 82만여 자 가운데 8만여 자를 선별해 보여준다. 대부분 17~20세기 초 조선시대 인쇄 출판 담당 관청인 교서관 등에서 국가나 왕실에 필요한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된 활자다.

이 전시를 기획한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조선시대에 활자를 사용하고 책을 찍었던 사람들이 활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보관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전시”라며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을 수 그분들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조선시대 활자 제작 횟수는 대략 금속활자 30여 회, 목활자 30여 회다. 이 중 금속활자는 국가 주도로 제작됐다. 목활자도 국가 주도로 제작된 것이 많다. 그러나 민간에서 만든 목활자는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실록을 비롯한 기록에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더러 나와 있지만, 만든 활자 종류와 만든 횟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인쇄한 책에서 어떤 활자를 사용했는지를 밝힌 예도 있다. /이성주 기자



황세희



이우진

‘USA 국제 하프 콩쿠르’ 한국인 2명 첫 수상

하피스트 황세희(20)가 제10회 USA 국제 하프 콩쿠르에서 4위를 차지했다. 지난 8~18일 인디애나대학교 제이콥스 음악대에서 열린 대회로 황세희에 이어 하피스트 이우진(18)은 7위로 입상했다.

소속사 스테이지원은 “USA하프 콩쿠르 역사상 한국인 수상자가 두 명이나 있는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USA 국제 하프 콩쿠르는 1989년 거장 하피스트 수전 맥도널드(81)가 창설했다. 매 3년마다 열린다. 이스라엘 국제 하프콩쿠르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하프 콩쿠르 중 하나로 통한다.

황세희는 2014년 라이언 & 힐리 어워드와 그 해 프랑스 국제 하프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 받았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선정한 ‘2016 클래식 라이징 스타’다. 7월21일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하프양상을 단체인 ‘하피데이 앙상블’(예술감독 박정) 단원이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 음악대에서 최연소로 최고 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우진은 예원학교 졸업 후 서울예고 재학 중 중퇴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수하 중이다. /이성주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사업 본격 추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백제문화의 보고가 될 ‘국립익산박물관(가칭)’ 건립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전시관은 올해 1월말 전라북도로부터 건물·토지·물품 등에 관한 공유재산을 인수하고 익산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국가귀족문화재 금동제사리외호 등 1,452점의 유물을 순차적으로 인수 완료했으며, 전주박물관에서 위탁보존 중인 문화재 19,048점의 인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박물관 제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시관은 상설전시실을 개선해 기존에 전시되지 않았던 소장품인 기와나 토기 등을 주제별·시대별로 분류하여 보여주는 등 전시품을 확대하고 조명·전시 보조물·휴게 공간 등 전시 관람객을 위한 시설도 보강한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체험학습실을 개편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광장 이영훈)과 협력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사업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 초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45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익산박물관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0년 개관될 예정이다.

국립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이병호 관장은 “문화재 이관은 현재 차질없이 진척되고 있다. 올해는 문화재 소장품 인수인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이에 대한 정리 및 등록을 마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2일)

<p>▷쥐띠 46년생: 인덕은 없으나 혼자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6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다. 8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p>	<p>▷소띠 49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어왔다. 6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니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운은 지나는 것이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실이 생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4년생: 손아랫사람에게 배플면 덕이 돌아오는 운.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지만 서로에게 좋은 자국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p>	<p>▷토끼띠 51년생: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6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시기. 75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87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주의하고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니 조심하라.</p>
<p>▷용띠 5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76년생: 오늘이 적이 곧 내일의 친구가 된다는 말을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88년생: 뒷사람의 모진 말속에 도울 되는 답이 있다.</p>	<p>▷뱀띠 5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 65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외출을 하면 손재수가 따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운이다. 89년생: 머리가 맑아지는 운이니 복잡한 일을 하거나 두뇌를 많이 이용하는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처음에는 화합하나 후반에는 어긋나. 6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기는 운. 78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나 과식은 금물이다. 90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다툼이 따르는 운이니 양보를 하거나 민심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양띠 55년생: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져라. 67년생: 먼저 배플면 후에 이득이 따르는 운. 79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학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91년생: 동성보다 이상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p>
<p>▷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8년생: 문서를 잡고자 하거나 계약을 할 때도 좋다. 80년생: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92년생: 현재 상황을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라.</p>	<p>▷닭띠 57년생: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소홀했던 사람을 찾아가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1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실이 생긴다. 93년생: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운.</p>	<p>▷개띠 46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발생한다. 58년생: 인덕은 바라지 말아라. 70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82년생: 상황이 변하여 늘려가니 힘든 일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p>	<p>▷돼지띠 47년생: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운. 59년생: 계약하거나 좋은 문서를 얻을 수 있는 운. 71년생: 뜻하지 않게 이성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83년생: 작은 욕심은 이루어지나 큰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p>